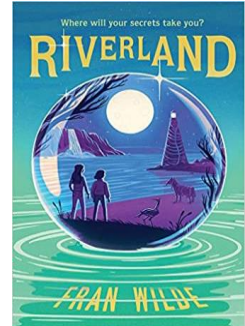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RIVERLAND  
가제 : 리버랜드  
저자 : Fran Wilde  
출판사: Amulet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문학



- \* 2020년 Nebula Award, Andre Norton Award 수상작, 2019년 NPR 선정 ‘가장 좋아하는 책’
- \* "가정 폭력에 관한 틀에 박힌 이야기에 도전하는 이야기,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북 리스트」
- \* "저자는 트라우마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신화를 연결해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능숙하게 허물어버렸다."- 퍼블리셔 위클리

집안의 분위가 점차 험악해져 가면 엘레노어와 그녀의 여동생 마이크는 엘레노어의 침대 아래에 있는 비밀 장소로 숨어 들어가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들 덕분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침대 밑에 강이 나타났고 두 자매는 그 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흥미진진한 모험이 가득한 이 소설은 두 자매의 아름다운 유대와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마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이다.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엘레노어와 마이크는 자연스럽게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엘레노어와 마이크는 아빠와 엄마를 ‘트롤’과 ‘마녀’쯤으로 생각했고 비록 상상이긴 했지만 언젠가 두 자매의 진짜 부모님이 둘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또한 엘레노어와 마이크는 언제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되자 엘레노어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오늘은 아무리 자신이 만든 마법의 주문을 외워도 통할 것 같지 않아 집에 빨리 가고 싶지가 않았다. 엘레노어의 아빠 포파는 집 근처 길 이름 ‘리버랜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인 대지를 갖기 위해 집 주변의 땅을 사 모으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요즘 들어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이전 보다 더 자주 이성을 잃곤 했기 때문이다.

엘레노어에게는 친한 친구 팬드라가 있었는데 팬드라는 언제나 집안의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엘레노어와 달리 언제나 자유롭고 모험심이 넘치는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팬드라는 엘레노어의 집을 구경하고 자신이 빌려준 책도 가져갈 겸 엘레노어의 집에 함께 가자고 즐랐다.

엘레노어의 집에는 일명 ‘하우스 매직’ 즉, 분노와 싸움으로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도 곧 정상적인 상태로 집을 깨끗하게 치워 놓은 어떤 마술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마법의 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다. 엘레노어는 반드시 그 규칙 중 하나인 ‘갑자기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기’를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펜드라는 계속해서 엘레노어를 즐겼고 엘레노어는 유일한 단짝 친구를 잃게 될까봐 그녀를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갔다. 펜드라는 집안을 구경하던 중 이 집에서 모든 것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유리로 만든 구슬인 ‘마녀의 공’을 발견하고 신기해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엘레노어의 엄마 모마와 동생 마이크가 집에 도착했다. 모마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간식을 대접했지만 엘레노어와 마이크는 포파가 곧 집에 와서 깜짝 방문객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고 있었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리자 펜드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방문객은 포파가 아닌 펜드라의 엄마였다. 하지만 연이어 포파가 도착하자 모두들 얼어 붙었다. 엘레노어의 엄마는 그에게 펜드라의 엄마가 할말이 있어서 온 것이라고 말했고 인상을 잔뜩 쓴 그는 무슨 일인지 당장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펜드라의 엄마는 학교에서 마이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모두가 돌아간 후 화가 난 포파는 마녀의 공을 벽에 던져버렸다. 그 유리공이 깨지자 엄청난 말 발굽 소리들이 들려왔고 한 그림자가 나타나 천장에서 소용돌이치더니 곧 사라졌다. 그러자 모마는 엘레노어에게 앞으로는 절대 그 누구도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날 밤, 엘레노어와 마이크는 다시 침대 밑에 들어갔고 엘레노어가 괴물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한 곳이 반짝이더니 옷이 다 젖을 만큼 커다란 강이 나타났고 그 강 위에는 청회색 깃털이 나타나더니 회색 보트 같은 모습으로 바람에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 강은 등대 하나와 물에 비친 수 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곧 강물이 걸잡을 수 없이 불어나더니 부서진 유리들 사이로 발을 딛고 있는 포파의 모습이 나타났고 마이크는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 후 엘레노어는 자신이 비릿한 냄새가 나는 물 위에 홀로 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곧 이어 수초에 발목이 묶여 허우적대고 있는 마이크를 구해냈다. 두 사람은 만으로 올라와 그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말하는 왜가리, 꿈쩍하게 생긴 말, 머리가 뱀인 여자 등 괴상하고 무서운 생명체들을 만나고 이 곳이 바로 악몽의 세계 ‘리버랜드’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엄마의 눈에 생긴 멍을 보는 순간 보다, 아빠를 피해 리버랜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는 것보다 리버랜드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과연 리버랜드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이들은 리버랜드보다 더 평화롭고 따뜻한 곳에서 살게 될 수 있을까? 가정 폭력이라는 어둡고 심오한 문제를 환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낸 독창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프란 와일드 (Fran Wilde)는 Andre Unicorn Award와 Compton Crook Award를 수상한 『Bone Universe 3 부작』의 저자이다.

제목 : CLEAN GETAWAY

가제 : 그린북을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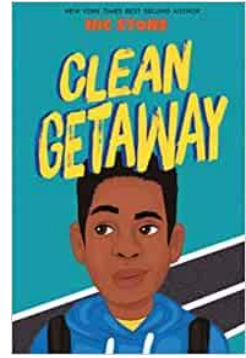
저자 : Nic Stone

출판사: Knights Of

발행일: 2020년 3월 5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인디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

\* 미국 내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해 보여준 아카데미 수상작 <그린 북>에 등장한 바로 그 그린 북에 소개된 곳들을 따라 한 흑인 소년과 그의 엄청나게 유쾌한 백인 할머니가 여행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 "세대를 뛰어넘어 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긴 여정을 통해 미국의 과거와 미국 역사의 중요한 사실들을 탐구해나가는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폭죽 같은 책." - 손테리아 오웬스

열한 살 흑인 소년 스쿱은 자신이 아기였을 때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의 엄마가 스쿱을 낳자마자 떠나는 바람에 아빠와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쿱은 자신의 백인인 할머니와 함께 여행용 자동차에 올랐다. 할머니가 스쿱에게 도로 여행을 떠나자고 말한 것이다.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소년과 그에게 때론 가슴 아프고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할머니에 관한 감동적이고도 유쾌한 소설이다.

미국 앨러바마 주, 스쿱은 처음 할머니가 스쿱을 찾아와 자신이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산 최신식 레저용 차를 타고 함께 모험을 떠나자고 불쑥 말을 꺼냈을 때 너무 좋아서 날아가고 싶었다. 학교를 며칠 결석해도 되고 아빠가 시킨 설거지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스쿱은 아빠에게 할머니와 있겠다는 메모만 남겨두고 바로 짐을 싸서 할머니의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할머니의 규칙에 따라 핸드폰마저 집에 두고 왔다. 원래 스쿱은 아빠와 여행을 가기로 되어있었고 짐도 미리 다 싸두었지만 스쿱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여행은 취소되었던 것이다.

스쿱은 원래 학교에서 별 큰 사고를 쳐본 적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스쿱은 친구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브라이스'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난생 처음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날 스쿱은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모습을 견디다 못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브라이스와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주변에 모인 선생님들은 브라이스가 아닌 스쿱만 마치 문제아인양 그를 노려보았고 스쿱에게만 처벌을 내렸다. 게다가 스쿱은 이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아빠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쿱의 아빠는 흑인인 스쿱은 아무리 그 의도가 바르다고 해도 다른 백인들보다 몇 배는 더 참고 조심해야 하며 더군다나 백인인 브라이스 같은 아이들은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 미국에는 이제 더 이상 '짐 크로우 정책 (Jim Crow, 흑인 차별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스쿱은 흑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리 낯설지는 않은 일이었다. 백인인 할머니와 흑인인 자신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호기심을 넘어서서 불쾌하게 느껴질 만큼 노골적인 시선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여행 중 두 사람이 슈퍼에 들를 때도 일어났다. 그럴 때면 스쿱의 할머니는 계산도 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그곳을 빠져 나오곤 했다.

캠핑장에 도착한 스쿱은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 있는 보물 박스를 들고 내렸다. 스쿱의 예상과 달리 그 안에는 보석더미나 할아버지의 유골이 아닌 낡은 라디오와 성냥갑, 엽서, 스크랩한 기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바로 1963년 판 '그린 북'이었다. 할머니는 흑인인 스쿱의 할아버지와 함께 흑인차별정책이 아직 시행되었던 그 때 그린 북에 안내 된 곳을 찾아 여행했던 그 추억의 길을 손자인 스쿱과 함께 다시 한 번 둘러보고 싶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스쿱에게 자신이 젊었던 그 때에는 스쿱과 같은 흑인들이 미국 전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으며 이 그린 북을 통해 흑인들을 고객으로 받아 주는 호텔이나 식당을 늘 찾아 다녀야만 했다는 사실을 들려 주었다. 스쿱은 그 책 속 지도를 펼쳐 펜으로 표시 된 곳들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스쿱은 태어나 처음으로 할머니가 영영 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스쿱 역시 오직 흑인이라는 이유로 밖을 다닐 때마다 이런 책을 보며 해냈을 할아버지를 생각하자 기분이 이상해졌다. 스쿱은 곧 표시 된 그 곳들이 당시에는 아주 드물게 흑인, 백인 모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스쿱은 할머니가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고속도로를 달리 던 중 갑자기 스쿱을 보석가게에 데리고 가더니 전에 했던 이야기는 모두 잊고 반짝이는 눈으로 보석들을 바라보며 온통 관심을 그곳에만 쏟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취미로 소매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쿱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 곳에서 보석을 훔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스쿱은 할머니가 조금씩 술을 자주 입에 대고 있다는 사실과 종종 정신을 잃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되뇌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할머니가 스쿱의 아빠에게 걸려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멕시코 국경으로 가는 길 핸드폰 마저 밖으로 던져버리자 스쿱은 점점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스쿱은 흑인 인권 운동 시절 할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이유와 아빠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게 된다. 과연 이 여정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딱 이 시기에 읽기 좋은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닉 스톤 (Nic Stone)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애틀랜타에서 태어 났으며 십대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몇년 동안 일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전업 작가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녀는 데뷔작 『Dear Martin』으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William C. Morris Award 후보에 올랐다.